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설비수리공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1. 개요

유○○은 2007년 9월 에어컨 콤프레샤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D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으로 2010년 8월 3일 오전 10시경 연삭기 설비고장으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여러 번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해머로 두드리는 작업을 하였고 “탕”하는 높은 소음에 1시간 정도 노출되었으며, 8월 5일 수리를 완료하였는데, 근무 중 두통과 멍한 느낌이 있었고, 7일 새벽 어지러운 증상과 심한 구토가 있어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2007년 9월 에어컨 콤프레샤 부품을 제작하는 D사에 입사하여 가공 업무는 주로 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설비수리, 개발업무 및 설비수리, 개발업무 및 설비개선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무실 근무는 20%, 공장 근무는 80%의 비중이며 작업 시 공구는 망치, 스패터, 몽키, 해머를 사용하였다. 2010년 8월 3일 연삭기 설비고장으로 수리 업무를 하였다. 해머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다. 해머로 수리업무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고치 133.7 dB(A) 였다.

3. 의학적 소견

2009년 청력검사에 이상 없었으며 그 외에 다른 병력이 없었다. 2010년 8월 5일 연삭기 설비 수리 완료 후 7일 새벽에 어지러움증과 심한구토 증상 있어 H병원에서 3회 청력검사를 하였고, K병원에서도 3회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좌측 5/35 dBHL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4. 결론

유○○의 돌발성 난청은

-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좌측 5/35 dBHL의 결과를 보였고,
-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며,
- 최대 소음이 120 dB(A) 이상으로 수리 업무 중에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